



국제노사관계학회(IIRA) 베를린 세계대회의 동향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국제노사관계학회(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IIRA)는 ILO(국제노동기구)에 사무국을 두고 전세계에서 노사관계 연구를 하는 학자 및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매 3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역시 3년마다 대륙별로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4년 6월에 아시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베를린에서 열린 제13차 IIRA 세계대회는 '전통적인 고용을 넘어서(Beyond Traditional Employment)'라는 주제로 작업장 노사관계, 고용관계, 노동운동의 변화와 유럽통합에 따른 노사관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요 트랙(track)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른 트랙에서 발표된 논문들에게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이슈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이었다. 전체 회의를 요약한 한 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는 가장 뜨거운 주제(heart of concern)이었다.

왜 세계노동기준의 이슈가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ILO의 역사는 바로 자본주의적 무역과 경제질서가 확립되면서 국제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권을 국제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요약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다시 국제노동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인상까지 줄 정도였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확립되었던 단체교섭 모델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고, 교섭의 양 당사자인 기업조직의 형태와 노동조합의 형태가 동시에 흔들리는 제도적 대격변기에 들어선 것이다. 기

업의 다국적·초국적·무국적화 경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기업조직이 포용하는 고용의 범위는 비정규성이 정규성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의 분화와 불명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조직률 저하를 겪고 있고 노조 조직통합과 전통적인 노조역할에 대한 대안적 기제의 등장으로 인해 안팎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거대한 제도적 변화에 맞선 최소한의 노동권이자 핵심적인 노사관계 기반으로 노동기준 문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고 이는 이전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이라는 시각으로 확장되었다. ILO의 핵심노동기준과 아울러 다국적 기업에 대한 사회윤리(code of conduct),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세계노동기준의 재설정 문제, EU차원에서의 노동기준 통합 등이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선상에서 호주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전에 WTO 무역규범과 핵심노동기준의 연계에 대해 이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라고 반대하던 개도국 노조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조사보고였다. 세계경제의 남북문제에 중국변수가 끼어 들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 세계대회에서의 이런 논의동향은 역설적이게도 세계노동기준을 중시할 정도로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이 불투명한 해체과정에 들어서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게 했다. 독일의 근본주의적 제도주의 학자들 중 상당수가 독일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노사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제도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베를린 현지에서 들었다.